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특성에 대한 연구

-자아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노 연 회

(가톨릭대학교)\*\*

이 상 균

(가톨릭대학교)

박 현 선

(세종대학교)

이 채 원

(숭실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이 어떤 구조적 특성을 지니며, 이런 특성에 따라 사회적 연결망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사회적 지지를 받는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도움을 받는 연결망과 주는 연결망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눈덩이표집방식을 통해 표집한 결혼이주여성 53명의 자아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았으며, 연결망내에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연계를 갖는 경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았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자아중심적 연결망, 사회적 지지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8-B00044).

\*\* 주저자

## 1. 서론

2010년 현재 한국 전체의 결혼건수 중 10.5%가 국제결혼이며, 특히 2011년 1월 현재 결혼이민자들 중 89.2%가 결혼이주여성으로 국제결혼가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1). 결혼이주 여성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주를 경험하는 국제이주자로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사회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역할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자원과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지지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된다는 관점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그리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개인들의 구조화된 관계체계를 보여주는 사회적 연결망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기반으로 강조되어 왔다(Portes, 1998; Lin, 1999; 박경태, 2001; 임석희, 2009).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국제이주자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더 많은 자원과 지지를 필요로 하지만 본국에서 형성된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는 일정 정도 단절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박경태, 2001; 염유식·김여진, 2011). 이들은 새롭게 형성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새로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서적 지지를 획득하며(Delechat, 2001), 사회, 경제,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염유식·김여진, 2011; 이주재·김순규, 2010; 임석희, 2009). 따라서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이들이 단순히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한국사회에 진입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정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심리적 요인 중심으로 접근하거나(김근영·곽금주·배소영, 2009),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둔 몇몇 연구들조차 다양한 유형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구조화시키지 못하여(박미정·엄명용, 2009; 이용균, 2007; 이주재·김순규, 2010; 임석희, 2009; 정석천·강기정, 2008), 사회적 연결망 그 자체가 보여주는 특성에 대해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연결망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Burt, 1992; Granovetter, 1973; Wellman and Wortley, 1990; 손동원, 2008), 기존 국내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개별적 관계를 통해 획득하는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유형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주로 사회적 지지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들 역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논의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제공주체로서 기능하는 경우에 사회적 연결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형성한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나 구조적 틈새(structural holes) 등의 구조적 특성과 연결망을 통해 획득한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사회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와 주는 경우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한국사회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과 이들이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문헌검토

### 1) 사회적 연결망의 의미와 기능

사회적 연결망은 일반적으로 일군의 행위자와 그들간의 연계(ties)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사회적 관계체계(Van Duijn and Vermunt, 2006), 또는 특정한 경계내에 있는 사람들간의 구체적인 연결의 세트(Israel and Antonucci, 1987)로 인식되어 왔다. 사람들간의 체계적 관계를 보여주는 사회적 연결망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나 자원을 획득하는 기반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제시되기도 한다(Lin, 1999; Wellman and Wortley, 1990; 손동원, 2008). 특히 Lin(2001)은 사회자원이론의 관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과의 연계에 기반하여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고 지적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일반적 정의를 보면 사회적 연결망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 또는 이를 통해 형성되는 사람들간의 구조화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은 사람들간의 상호작용 또는 관계의 유무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연결망내 개별행위자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나 사회현상을 관계의 구조적 특성에 기반하여 해석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Morrison, 2002; Van Duijn and Vermunt, 2006). 또한 사회적 연결망 분석은 사람들간의 다양한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관계구조를 시각화하고 통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구조를 이해하고,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기준으로 이들의 특성과 행위를 비교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Wellman and Wortley(1990)는 사람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Smith, 2003; 염유식·김여진, 2011 재인용),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사회적 연결망은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특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문제상황에 있을 때 일상적인 정서적 지지나 가사지원과 같은 소규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2) 사회적 연결망 분석 방법과 내용

### (1) 완전한 연결망과 자이중심적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 분석은 일반적으로 자이중심적/개인적 연결망(ego-centered/personal network)과 완전/일원연결망(complete/one-mode network) 분석 두 가지로 구분되어왔다. 자이중심적 연결망은 분석의 초점이 되는 개인, 즉 자아(ego)가 인지하는 연결망으로, NGQ(name-generator question)와 NIQ(name-interpreter question)방법을 활용하여 자아를 통해 자아와 타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타자와의 연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Everett and Borgatti, 2005). NGQ는 자아가 연계를 맺고 있는 타자를 제시함으로써 연결망의 경계를 정하는 역할을 하며, NIQ는 타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타자간의 관계를 측정한다(박바름 외, 2011). 자이중심적 연결망 분석은 자아를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자료수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자료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지닌다(Everett and Bogartti, 2005). 또한 이 방식은 초점이 되는 개인과 연결망의 구성원들간의 직접적 연계에 주로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구성원들간 간접적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Iler, wellman, and Marin, 1999).

반면 완전한 연결망은 정교하게 정의된 일정한 경계내에 있는 행위자들이 다른 모든 행위자들과의 연계에 대해 보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Everett and Bogartti, 2005; Van Duijn and Vermunt, 2006). 완전한 연결망은 전체적인 사회구조를 파악하는데 용이하지만, 명확한 물리적 경계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또한 이러한 경계내의 제한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경계밖에 존재하는 다른 행위자와 연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모집단 전체의 사회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흔히 완전한 연결망을 활용하지만, 자이중심적 연결망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연결망, 특히 한 사회나 조직의 새로운 구성원을 분석하거나(Bailey and Marsden, 1999; Morrison, 2002), 개인들의 특별한 사회적 접촉 또는 개인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연구에서 활용되어왔다(Iler, et. al., 1999).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완전한 연결망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사회적 연결망이 연결망내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해왔다. 즉 사회적 연결망은 개인들의 삶의 질, 신체적 또는 심리적 안녕감 등에 영향을 미치며(Israel and Antonucci, 1987; Tilburg, Sonderen, and Ormel, 1991;

Van der Poel, 1993), 특정한 사회나 조직의 새로운 진입자들이 그 사회의 규범 등을 획득하는 학습 또는 사회화 과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영향을 미친다(Morrison, 2002). 한편 일부의 연구는 자아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결망의 특성이 사회적 지지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Wellman and Wortley, 1990). 캐나다 East York Study 자료에서 29명의 하위표본을 추출하여 자아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시도한 Wellman and Wortley(1990)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망의 유형 및 연계의 정도와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약한 연계보다는 소수의 강한 연계로부터 정서적 지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또는 사적 교체 등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Wellman & Wortly(1990)의 연구는 연결망의 특성, 즉 연계의 정도와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Morrison(2002)의 연구는 새로운 구성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중요한 논의기반을 제시한다. 즉 한국사회의 새로운 진입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은 이들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화, 즉 한국사회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들을 제공할 수 있다.

## (2) 사회적 연결망 분석의 내용

일반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분석은 주로 밀도와 구조적 틈새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손동원, 2008)<sup>1)</sup>, 개인적 차원에서 연결망의 밀도나 강도 등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도 한다(Stone, 2001). 우선 연결망의 밀도는 연결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정도, 즉 참여자들간 관계의 응집정도를 의미한다. 높은 밀도는 연결망내 행위자들간의 관계가 많은 경우이며, 밀도가 높은 연결망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고 지적된다(손동원, 2008).

연결망의 밀도나 연계의 정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는 또 다른 개념은 구조적 틈새이다. 구조적 틈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연계에서 중복되지 않고, 그 행위자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연계되는 위치를 의미한다(Burt, 1992). Burt(1992)는 중복되는 연계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결망내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효용가치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연결망내 행위자들을 매개할 수 있는 구조적 틈새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자이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율성이 높아지며,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제약성은 감소하게 된다(손동원, 2008).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조언이나 충고, 필요한 자원 등 정서적 또는 물질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연결망의 밀도와 구조적 틈새와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하면, 이러한 특성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밀도가 높은 연결망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신뢰를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제시된다(손동원, 2008). 이는 연

1) 구체적으로 밀도나 구조적 틈새를 보여주는 규모적합성이나 제약성 등의 구체적인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동원(2008) 및 김용학(2011)을 참고할 것.

결망의 밀도가 높으면서 폐쇄적인 경우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Coleman(1988)의 주장과 유사하다. 한편 연결망의 구조적 틈새 역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는데, 이 경우는 연결망의 밀도와는 다소 다른 효과를 거두게 된다. 즉 구조적 틈새에 위치한 사람, 즉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연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다양한 새로운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얻을 수 있다고 제시되어 왔다(Burt, 1992; 손동원, 2008).

연결망의 밀도나 구조적 틈새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약한 연계의 강점을 제시하는 Granovetter(1973)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Granovetter(1973)는 약한 연계의 강점, 즉 약한 연계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기반으로 연결망을 통해서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는 연결망내의 관계의 정도, 즉 강한 연계(strng tie)나 약한 연계(weak tie)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논의가 전개되어왔다(Wellman and Wortley, 1990). 예를 들어서 연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정보의 질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며, 강하게 연결된 연결망을 통해서만 유사한 정보만을 획득하게 된다(손동원, 2008). 이러한 연계의 강도는 접촉의 빈도 등과 같은 친밀성이라는 지표로 측정되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계의 강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의 강도는 밀도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한 연계는 연결망내의 개별 구성원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밀도는 전체 연결망에 대한 지표로 연결망 참여자들끼리의 관계가 연결되어진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 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논의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박미정·엄명용, 2009; 이용균, 2007; 이주재·김순규, 2010; 임석희, 2009; 정천석·강기정, 2008),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다양한 유형의 관계가 정보나 정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생활상의 만족이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조사대상의 크기나 지역적 분포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든 가족, 특히 남편과 시댁식구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자아존중감, 및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박미정·엄명용, 2009; 이용균, 2007; 정천석·강기정, 2008). 기존연구들은 또한 가족이외에는 특히 이웃 등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들은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람과의 교류방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한국 사람이나 이웃들의 과도한 관심이나 간섭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이용균 2007; 정천석·강기정, 200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이주재·김순규, 2010), 때로는 한국친구의 수가 지역사회생활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임석희, 2009)가 제시되기도 한다. 특히 임석희(2009)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의 문제를 주로 남편이나 시댁식구와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적응의 문제를 포괄

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구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내 다양한 구성요소들과의 확대된 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같은 국가출신의 친구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되어왔다(이용균, 2007; 박미정·엄명용, 2009). 이런 결과는 국제이주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동질적인 문화의 공유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다른 국가출신 이주여성들과는 단순히 알고지내는 정도의 관계만을 형성하고 있으며(이용균, 2007), 의사소통상의 문제 때문에 간섭과 같은 이들과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조차 가능하지 않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박미정·엄명용, 2009).

결혼이주자의 경우는 실제로 거주기간에 따라 형성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가족에서 지역사회내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포함하게 되거나, 또는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지가 다를 수 있다(임석희, 2009). 또한 국제이주자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집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이질적인 집단과의 관계를 동시에 형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염유식·김유진, 2011). 따라서 몇몇 연구는 가족, 같은 국가 출신의 친구나 이웃과의 비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관련자 등 공식적 관계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지지를 누가 제공하는지를 분석한다(박미정·엄명용, 2009; 임석희, 2009).

공식적 관계와 관련하여 박미정·엄명용(2009)은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공식적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들과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생활만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과 기관자원의 연계 등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이주재·김순규, 2010).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단체나 사회복지조직 등과의 관계가 이들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임석희, 2009), 결혼이주여성은 실제로 한국어 교실이외의 공식적인 모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이용균, 2007).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가족 그리고 같은 국가출신의 친구와의 관계가 한국 사람이나 이들에 대한 서비스 관련자 등과의 공식적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이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유형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다양한 공식적 관계를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별적 관계의 유무나 크기, 사회서비스 이용유무, 또는 개별적 관계의 만족도에 초점을 두어 연결망 전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연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 결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결망에서 행위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 사회적 연결망 분석에서 핵심적 내용이 되는 밀도나 구조적 특성의 효과와 같은 특성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데, 이러한 분석은 결혼이주여성 역시 도움을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한

개인이 사회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단지 도움을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등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규범 등을 학습하고,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출신국가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동시에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부재로 인하여 주로 도움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열악한 상황일 지라도 연결망 내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눈덩이표집방식을 통해 표집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서비스 기관의 전문가와의 접촉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핵심적 인물을 소개받았는데, 이들은 주로 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이나 다문화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모임의 대표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핵심인물들이 알고 지내는 결혼이주여성을 소개받고, 이들 중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일정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구참여자 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sup>2)</sup>.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중심적 연결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구조화된 형태의 설문지를 기반으로 연구자와 면접원이 직접 일 대 일 때로는 일 대 다수의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내에서 정보, 정서 및 도구적 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사회적 연결망이 어떤 특성을 지니며, 이런 연결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자아중심적 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연결망은 하나의 조직이나 학급과 같이 한정된 공간으로 명확한 경계를 짓기 어려우며, 경계가 규정된 체계 내에서 모든 구성원들 간의 연계를 보여주는 완전한 연결망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아중심적 연결망은 자아인 53명의 연구참여자가 각각 본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 그리고 자신과 타자 및 타자간의 연계의 수 등을 제시하고, 연계를 맺고 있는 각각의 타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연구자는 각각의 연구참여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

2) 일반적으로 자아중심적 연결망은 소규모 연결망을 분석하는데 활용되는데, 예를 들어 Wellman and Wortley(1990)은 29명을 대상으로 자아중심적 연결망을 분석하였다.



들의 수 및 도움을 주고받은 회수 등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53명의 개별 연결망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계산하여 이 자료를 최종적으로 하나의 자료로 구축하여 분석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도움을 받은 경우의 연결망과 도움을 주는 연결망의 각 53개, 총 106개의 개별 자료파일을 구축하여 UCINET을 활용하여 연결망의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 즉 밀도(density)와 구조적 틈새 효과를 측정하는 규모의 적합성(effective size of ego network)과 연결망의 제약성(network constraint)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연결망 지표를 통합하여 최종적인 자료로 구축하여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측정도구 구성

본 연구는 자아중심적 연결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Burt(1984)가 개발하여 1985년 미국 General Social Survey에서 활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자아중심적 연결망의 자료수집을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NGQ와 NIQ 방식을 활용한다. 전자는 응답자인 자아가 상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규명하여 명단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후자의 방식으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몇 회나 주고 받았는지 등 타자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GSS가 자아가 규명하는 타자의 수를 5명으로 제한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연결망의 전반적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회고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부정확성 문제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이라는 시간상의 제약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결망 내 타자와의 구체적인 관계유형은 남편과 아이 등 직계가족은 제외하고, 크게 비공식적 관계와 공식적 관계로 구분하였다. 비공식적 관계에는 시댁식구, 친정식구, 친구, 이웃, 직장동료, 다문화모임관련자, 기타모임관련자를 포함하였으며, 공식적 관계에는 사회서비스 관련자, 행정기관관계자, 종교기관관계자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의 국적은 한국 사람, 같은 나라 출신, 및 다른 나라 출신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생활상의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이며, 이들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는 회수를 측정하였다. 연결망을 통해 주고 받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은 자문이나 상담과 같은 정서적 지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또는 가사지원과 같은 소규모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도구적 지지 그리고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GSS와는 다르게 도움을 주는 경우와 받는 경우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단지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적응하게 되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4. 분석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는데,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이 37.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베트남 20.8%, 일본 13.2%였으며, 그 외 몽골,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출신으로 구성되었다. 국내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이며, 아시아 국가 출신이 90%이상인 행정안전부(2011)의 자료와 비교해볼 때, 본 연구참여자는 개별 국가별 구성은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출신으로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약 87% 정도가 9년 이상, 고등 및 대학교 수준인데, 평균연령은 약 34세이며, 20-30대가 84.9%이다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학이상 23.2%, 고졸이상이 49.1%이며, 63%가 20-30대인 경향(이상식·최효진·박성재, 2009)과 비교할 때 본 연구참여자의 교육수준은 다소 높았으며, 연령은 다소 낮았다. 한국체류 기간은 평균 70개월 정도, 즉 5년 8개월인데, 약 1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200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평균체류기간이 약 9.4년 정도로 본 연구참여자보다 긴 편이었다(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2008). 그러나 이 실태조사의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약 34%가 1-3년 미만 체류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 대상자의 체류기간이 매우 짧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수준에 대해 본 연구는 본인들의 인식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의 약 70%가 중산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2008년 현재 월소득 200만원 이하가구가 54.5%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김유경 외, 2008)와 비교하면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수준을 약간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약 49%의 이주 여성이 직업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전체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본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과 경제적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한편 이들의 한국어 구사수준은 본 연구의 조사가 면대면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자 자신이 아닌 면접자의 판단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51% 정도가 중간정도, 즉 억양 등에 있어서 일정 정도 특색이 드러나긴 하지만, 한국인과 의사소통에 큰 문제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반 한국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도 약 30%이상 이었다.

## 2)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연결망 구조와 특성

###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표 1〉 응답자 일반사항

구분	세부내용	빈도(명)	비율(%)
국적	중국	20	37.7
	일본	7	13.2
	대만	1	1.9
	몽골	2	3.8
	베트남	11	20.8
	필리핀	5	9.4
	인도네시아	1	1.9
	캄보디아	1	1.9
	우즈베키스탄	3	5.7
	카자흐스탄	1	1.9
	기타(응답안함)	1	1.9
	총계	53	100.0
	교육수준	초등(6년이하)	1
중등(6-9년)		6	11.3
고등(9-12년)		22	41.5
대학교(12년이상)		24	45.3
총계		53	100.0
한국에 온 최초 이유	결혼	45	84.9
	취업	3	5.7
	학업	2	3.8
	기타	3	5.7
	총계	53	100.0
현재 경제수준 (본인 인식)	상	0	0.0
	중	37	69.8
	하	16	30.2
	총계	53	100.0
직업유무	있음	26	49.1
	없음	27	50.9
	총계	53	100.0
한국어구사 능력 <sup>1)</sup>	상	16	30.2
	중	27	50.9
	하	10	18.99
	총계	53	100.0

나이	20대	13	24.5
	30대	32	60.4
	40대	8	15.1
	총계	53	100.0
		평균: 33.92(년)	SD: 5.9
체류기간	평균: 69.75(개월) SD: 41.4		

1) 한국어 구사 능력은 연구대상자의 응답이 아니라 면접자의 판단에 근거함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자아인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와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를 분리하여 자아중심적 연결망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2>는 각 연결망에 주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도움을 받는 경우와 주는 경우 각 관계유형의 사람 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paired t-test)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 관계유형별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 수

관계 유형	도움을 받는 경우				도움을 준 경우				t값 <sup>2)</sup>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총인원	5.57	2.42	1	10	4.32	2.51	0	10	3.367**
시택식구	0.64	0.88	0	3	0.53	0.81	0	3	1.16
친정식구 <sup>1)</sup>	0.32	0.80	0	4	0.29	0.78	0	4	.32
친구	2.13	2.22	0	10	2.29	2.25	0	10	-.228
이웃	0.42	0.69	0	3	0.39	0.78	0	3	.444
직장동료	0.19	0.48	0	2	0.16	0.42	0	2	.468
다문화모임 관계자	1.32	2.02	0	10	1.24	2.34	0	10	.074
기타모임관계자	0.30	0.91	0	4	0.16	0.61	0	4	1.384
사회서비스 관련자	0.92	1.25	0	5	0.27	1.04	0	7	2.960**
행정 관계자	0.21	0.57	0	3	0.00	0.00	0	0	2.671*
종교 관계자	0.30	0.85	0	4	0.07	0.44	0	3	2.003
기타	0.17	0.51	0	3	0.16	0.50	0	2	.207

1) 친정부모나 가족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함

2) \* p <.05 \*\* p <.01

우선 도움을 받는 연결망의 경우는 평균 5.57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망의 크기는 최

소는 1명 최대는 10명까지 보고되었다. 이 도움을 받는 연결망의 구성원을 각 관계유형별로 평균 몇 명 정도로 구성되었는지를 보면 사적인 친구관계가 평균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자조모임이나 친목모임 등 사적인 다문화관련 모임에서 만난 사람으로 평균 1.32명이었다. 세 번째는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전문가로 0.92명 이었다. 그 외에는 시댁 식구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친정식구들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연구들이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가 중요하다고 제시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소 상이하다(박미정·엄명용, 2009; 이용균, 2007; 정천석·강기정, 2008). 이는 우선 본 연구가 남편을 제외하고 연결망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참여자의 거주기간이 평균 5년 8개월로 이주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이들의 관계가 가족에서 다른 관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시댁 식구보다 자조모임관련자와 공식적 관계로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연결망내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결과는 공식적 관계가 별다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일부의 기존연구(이용균, 2007; 임석희, 2009)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자아인 이주여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연결망을 보면 총인원은 평균 4.32명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 연결망의 크기가 약간 작았으며 특히 최소값이 0명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관계유형을 보면 도움을 주는 연결망의 경우도 친구가 평균 2.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모임관련자 2.34명, 사회서비스전문가 1.04명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는 사회서비스 전문가가 도움을 받는 연결망의 경우에서만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여성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이들에게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단순노동보다는 다문화관련강사 또는 일어나 영어강사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할 때<sup>3)</sup>,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과정에서 서비스 전문가들과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도움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 거주하는 친정식구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친정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식구가 한국에 같이 거주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동시에 친정식구들 역시 연구참여자에게 일정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시댁식구의 경우 평균 0.64명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0.53명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분석되었다. 친정식구 또한 도움을 주는 경우가 평균 0.29명으로서 도움을 받는 경우 0.32명에 비해 작았다. 즉, 친정 및 시댁 식구 모두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관계가 더 많으며, 친정식구보다는 시댁식구가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의 연결망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또한 도움을 받는 연결망과 도움을 주는 연결망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유형이 상이한지

3)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본 연구참여자 26명 중 다문화관련 강사가 6명,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 강사가 6명 회사원 4명 등으로 대체로 준전문가적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연결망 크기, 사회서비스 전문가, 그리고 행정전문가의 경우 t값이 각각 3.567, 2.960, 그리고 2.67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결망의 전체 구성원의 수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도움을 주는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사회서비스전문가와 행정전문가 역시 도움을 받는 경우에 더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지지가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다른 관계유형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및 행정전문가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도움을 받는 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공식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는 관계는 아님을 보여주었다. 연결망을 구성하는 총인원, 사회서비스 관련자 및 행정관련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도움을 받은 경우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경우 또한 그 크기가 유사하거나 약간 작은 정도였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는 도움을 주는 관계가 도움을 받는 관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움 제공자 즉, 능동적 주체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의 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평균거주기간이 약 6년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초기 적응 단계를 벗어나고 있으며, 교육 및 사회경제적 수준 또한 비교적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에 비해 능동적인 도움제공 역할을 수행할만한 사회적 자본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연결망의 구성을 <표 3>에서와 같이 국적별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도움을 받는 연결망은 한국 사람이 평균 3명, 그리고 같은 나라 출신이 2.38명으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여성이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이들이 도움을 주는 대상은 같은 나라 출신의 사람이 3.08명, 한국 사람이 1명이었다. 이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지만, 이들이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신들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주여성, 특히 같은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3> 국적별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 수

국적	도움을 받는 경우				도움을 준 경우				t값 <sup>1)</sup>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한국	3.00	2.36	0	8	1.00	1.39	0	6	7.960**
같은나라	2.38	2.16	0	10	3.08	2.47	0	10	-2.026*
다른나라	0.13	0.39	0	2	0.25	0.62	0	3	-1.518

1) \* p<.05, \*\* p<.01

대응표본 t검증 분석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는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사람 및 같은 나라 사람의 수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와 도움을 주는 경우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한국 사

받은 도움은 받는 연결망에, 같은 나라 출신 사람은 도움을 주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반면 다른 나라출신의 경우는 양쪽 연결망에서 모두 그 수가 매우 작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연구의 지적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워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연결망의 결속정도를 보여주는 밀도 그리고 연결망내 응답자의 구조적 위치를 보여주는 구조적 틈새 효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표 4). 우선 밀도는 연결망내에서 가능한 총 연계수에서 실제로 맺어진 연계수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인데, 밀도가 높은 경우 연결망내 사람들간에 매우 강한 응집력 또는 결속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크기와는 반비례한다(김용학, 2011). 도움을 받는 연결망의 밀도는 평균 0.32였으며, 도움을 주는 연결망의 경우 밀도는 0.33으로 두 연결망의 결속력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조적 틈새는 구체적으로는 연결망내의 연계가 중복되지 않는 정도, 즉 비중복성을 나타내는 규모 적합성과 자아가 타자에 의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제약성 지표로 측정되는데, 자아가 연결망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김용학, 2011). 일반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연계로 구성된 연결망에서 매개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자아의 경우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반면 제약성은 연결망내에서 자아가 실질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에 의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아가 도움을 받는 연결망의 경우 규모적합성은 평균 4.23이었으며, 제약성의 평균값은 0.45였으며, 응답자인 자아가 도움을 주는 연결망의 경우 규모적합성의 평균은 3.19, 제약성의 평균은 0.51이었다. 평균값만을 보면 도움을 받는 연결망보다 도움을 주는 연결망이 규모의 적합성의 정도는 다소 낮았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타인에게 주는 경우 이들간의 관계가 다소 중복적임을 보여준다. 제약성의 경우는 도움을 주는 연결망이 자아가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존성이 다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움을 받는 경우와 주는 경우간에 연결망 지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는지에 대한 t-검증 결과를 보면 연계의 중복의 정도를 보여주는 규모적합성, 즉 중복되지 않는 연계가 도움을 받는 경우에 도움을 주는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 연결망내 연계를 중복되지 않고 다양하게 함으로써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데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형성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도움은 주는 경우에는 같은 나라 출신 또는 친구관계가 많다는 결과와 같이 고려한다면, 도움을 주는 연결망은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쉬운 같은 나라 출신의 친구와의 연계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4〉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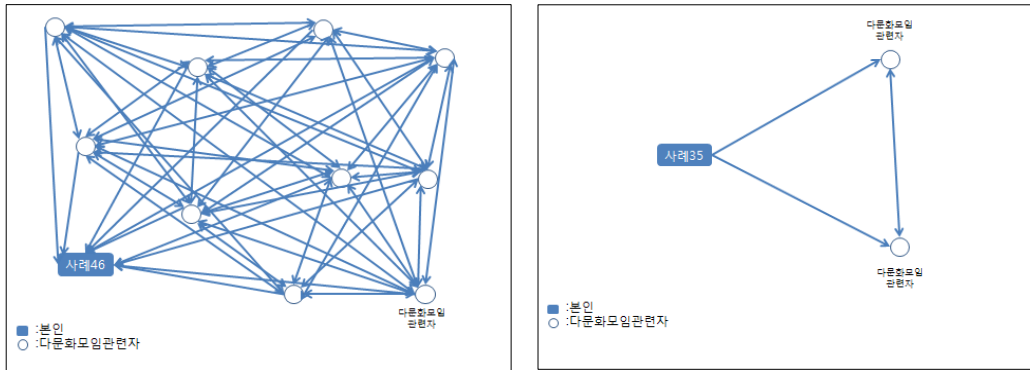
연결망 지표	도움을 받는 경우				도움을 주는 경우				t값 <sup>1)</sup>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밀도	0.32	0.31	0.00	1.00	0.33	0.35	0.00	1.00	-.397
규모	4.23	2.28	1.00	9.20	3.19	1.93	1.00	8.60	3.141**

적합성									
연결망 제한성	0.45	0.25	0.17	1.13	0.51	0.26	0.13	1.13	-1.380

1) \* p<.05, \*\* p<.01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사례 분석**

사회적 연결망 분석은 행위자가 구성한 연결망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는 동일한 물리적 경계안에서 생활하지 않아 완전한 연결망 분석처럼 하나의 연결망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움을 받는 경우와 도움을 주는 경우 각각 53 개의 자아중심적 연결망을 도출하였다. 이 중 <그림 1>과 <그림 2>는 밀도와 규모의 적합성 지표를 기반으로 연결망의 상반되는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부 사례이다. 이 네 가지 사례는 연계의 유무나 연계의 수만으로는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자아와 타자의 연계 그리고 타자와 타자의 연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례46: 도움을 받는 경우

사례35: 도움을 주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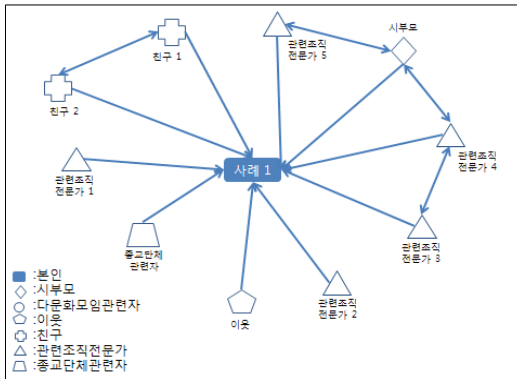
<그림 1> 연결망의 최대 밀도와 최소 규모적합성

우선 <그림 1>의 사례는 연결망의 특성, 즉 연결망의 밀도와 구조적 특세라는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즉 이 사례들의 경우는 동일하게 최대 밀도값 1, 최소 규모적합성의 값 1을 보여준다. 사례46은 결혼이주여성이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로 참여자의 수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총 10명의 타자로 구성되어 비교적 크지만 자아와 타자, 타자와 타자가 대부분 서로 연계를 지니고 있는 나타난다. 연결망의 참여자를 자세히 보면 자아와 연계를 지닌 타자들은 모두 유사한 속성을 지닌 다문화모임관련자로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알고지내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중복적이고, 서로가 의존적이고 결속력이 강해 다소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례35의 사회적 연결망은 매우 단순하게 2명의 타자로 구성된 소규모 연결망이다. 그러나 이 연결망은 사례 46과 마찬가지로 최대 밀도와 동시에 최소 규모적합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 두 사례는 연결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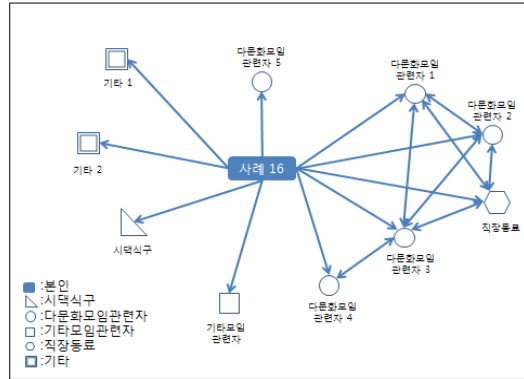


크기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다르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즉 실제 연결망내의 결속력은 매우 강하지만, 규모의 적합성, 즉 중복되는 관계가 많으며 폐쇄적인 경우로 실제로 연결망으로부터 이익이나 혜택을 많이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의 경우 위의 두 사례와는 다르게 규모의 적합성이 각각 최대값으로, 본 연구 참여자 53명 중 자아가 구조적 틈새에 위치하며, 중복되지 않는 연계가 가장 많은 사례이다. 우선 사례1은 도움을 받는 연결망으로 규모적합성이 9.20인데, 시부모, 이웃, 친구, 다문화모임관련자 등 비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및 종교단체 관련자 등 공식적 관계를 포함해 총 10명의 다양한 타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결혼이주여성인 자아는 시부모-관련전문가3-관련전문가4-관련전문가5로 구성된 하위집단 그리고 친구1-친구2로 구성된 또 다른 하위집단, 그리고 이웃 또는 종교단체 관련자 등 각각 다른 4명의 개인들과도 연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타자들이 결혼이주여성을 통해서 매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16 역시 총 10명의 타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연결망 구조 자체만으로도 사례1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주는 연결망으로 규모적합성이 8.60으로 최대값이다. 이 연결망은 다문화모임관련자 4명과 직장동료 1명이 서로 연계가 있는 하위집단과 그 이외의 총 5명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타자들은 자아인 결혼이주여성을 매개로 하여 연계되어 있다. 이 두 사례는 다소 폐쇄적인 사례46이나 사례35의 연결망과는 다르게 개방적인 형태를 보이며, 자아인 결혼이주여성이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구조적 틈새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1 도움을 받는 경우



사례 16 도움을 주는 경우

〈그림 2〉 연결망의 최대 규모적합성

### (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유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중심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이 연결망으로부터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분석하였다. 〈표 5〉는 이주여성이 연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유형에 따라 어떤 도움을 어느 정도나 주고받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도움을 받는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사회적 지지는 정보적 지지로 평균 3.89회였으며, 정서적 지지는 3.66회 였다.

반면 도구적 지지는 1.45회로 다른 유형보다 적게 받았다.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제공했으며, 그 다음은 정보 제공이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돈이나 현물, 또는 노동력의 제공등과 관련된 도구적 지지는 1.4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관계유형별로 어떤 지지를 받는지를 보면 시댁식구로부터 정보, 정서적 지지, 그리고 도구적 지지 순으로 많이 받았으며, 반면 친정식구로부터는 정보, 도구적 그리고 정서적 지지순으로 가사지원이나 재정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정서적 지지보다 많았다. 다양한 관계유형에서 대체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구와 직장동료의 경우는 정보보다는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하였다. 이주여성이 도움을 주는 연결망의 경우도 대체로 유사한데 다양한 관계유형의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였지만, 친구, 직장동료 및 기타모임의 관련자들에게는 정보보다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하였다.

〈표 5〉 관계유형별 받은 도움의 유형

관계 유형	도움을 받는 경우 (회수)			도움을 준 경우 (회수)		
	정보	도구	정서	정보	도구	정서
평균회수 (SD)	3.89 (3.03)	1.45 (1.74)	3.66 (4.15)	3.14 (3.82)	1.44 (1.84)	3.32 (5.34)
시댁식구	4.73 (3.43)	2.23 (1.95)	3.86 (3.67)	3.94 (3.61)	2.00 (1.94)	2.94 (3.21)
친정식구	3.20 (2.86)	2.50 (2.07)	1.90 (2.13)	1.78 (1.79)	2.11 (2.09)	1.00 (1.22)
친구	4.07 (3.20)	1.49 (1.71)	4.28 (4.36)	3.14 (4.10)	1.70 (1.91)	3.72 (5.58)
이웃	5.65 (2.89)	1.71 (2.02)	4.71 (4.31)	2.92 (3.12)	1.58 (1.83)	2.67 (2.87)
직장동료	2.88 (2.37)	1.88 (2.30)	3.75 (3.11)	3.14 (4.49)	0.57 (0.79)	3.71 (3.25)
다문화모임관계자	4.57 (3.00)	0.96 (1.23)	4.46 (5.06)	4.21 (3.77)	1.32 (1.97)	3.05 (4.72)
기타모임관계자	7.14 (3.24)	1.57 (1.27)	6.00 (3.00)	8.80 (7.01)	2.00 (1.87)	10.20 (11.47)
사회서비스전문가	5.15 (3.31)	1.46 (1.96)	3.61 (3.06)	6.00 (3.46)	3.71 (2.21)	2.86 (3.44)
행정관계자	7.13 (3.80)	1.25 (1.28)	5.13 (3.60)	-	-	-
종교관계자	7.00 (3.00)	1.67 (1.12)	6.78 (4.99)	2.50 (0.70)	1.50 (2.12)	0.00 (0.00)
기타	3.43 (2.64)	1.57 (1.27)	3.00 (2.00)	5.63 (3.38)	3.25 (2.43)	2.50 (3.34)

본 연구결과를 보면 대체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연결망은 정보와 정서적 측면에서의 지지를 많이 주고받는데, 이는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심리적

측면에서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욕구 등이 많으며, 이러한 욕구를 연결망을 통해서 일정정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움을 받는 경우와 도움을 주는 경우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도구적 지지의 경우 친정식구에게 도움을 줄 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친정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적별로 어떤 종류의 도움을 어느 정도로 받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6>에서 보면 국적에 상관없이 주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주여성이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를 보면 같은 나라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횟수가 더 많았다.

<표 6> 국적별 주고받는 도움의 유형

관계 유형	도움을 받는 경우			도움을 준 경우		
	정보	도구	정서	정보	도구	정서
한국(SD)	4.48 (3.00)	1.67 (1.86)	3.50 (3.68)	3.84 (3.65)	1.92 (2.10)	2.76 (3.10)
같은나라(SD)	4.14 (3.15)	1.32 (1.71)	4.05 (4.37)	3.24 (3.93)	1.43 (1.92)	3.48 (5.48)
다른나라(SD)	4.33 (2.34)	2.00 (1.10)	4.17 (3.54)	3.33 (2.60)	1.11 (1.69)	2.00 (3.12)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즉 밀도나 구조적 틈새 효과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그 연결망으로부터 획득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다른가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도움을 받는 연결망의 경우 연결망의 크기, 규모의 적합성, 및 연결망 제약성과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받는 회수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규모의 적합성이 높아질수록 자아인 이주여성이 받는 정보와 정서적 지지의 횟수가 많아졌다. 이와는 상반되게 연결망의 제약성은 정보와 정서적 지지의 회수와 음(-)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연결망내의 사람들간의 결속력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정서적 지지의 양도 같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밀도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지지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인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주는 연결망의 경우는 밀도를 제외한 크기, 규모의 적합성 및 제약성이 정보와 유의미하지만, 다소 다른 것은 정서적 지지가 아니라 도구적 지지의 회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구조적 틈새를 보여주는 규모적합성과 연결망의 제약성과 정보를 주고받는 회수간의 관계로, Granovetter(1973)가 주장하는 '약한관계의 강함'의 내용과 유사하다. 즉 연결망내에서 관계의 중복성이 낮을 경우 정보의 흐름이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본 연구의 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연결망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도움을 받는 연결망의 경우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요한 것은 매우 연결망내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결속력이 강한 연결망의 형성이라기보다는 비록 결속력은 약하여 타자들간에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일지라도 다양한 사람들과 광범위한 연계를 형성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도움유형간의 상관관계

유형		크기	밀도	규모의 적합성	연결망 제약성
도움 받는 경우	정보	.486**	-.160	.514**	-.381**
	도구	.189	-.136	.199	-.251
도움 주는 경우	정서	.639**	.102	.314*	-.329*
	정보	.721**	.014	.530**	-.340**
도움 주는 경우	도구	.462**	-.103	.479**	-.299*
	정서	.602**	.242	.053	-.240

\*\* <.01 \* <.05

가사지원이나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 즉 도구적 지지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도움을 받는 경우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즉 도움을 받는 경우 연결망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와 도구적 지지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규모의 적합성 및 연결망 제약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연결망에서 중복적 관계가 적을수록 보다 많은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도움을 받는 경우는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 또한 구조적 틈새를 측정하는 지표인 규모의 적합성과 연결망의 제약성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즉 관계가 중복되지 않고, 타자와의 관계에 의존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자이는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

〈표 7〉의 분석결과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되는 밀도와 구조적 틈새와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의 다를 수 있다는 내용과 일관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즉 일반적으로 밀도는 연결망내 구성원들의 결속의 정도를 보여주며 밀도가 높은 경우 정서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며, 때로는 그들간의 정보의 교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시되어 왔다(손동원, 2008).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밀도는 어떤 유형의 사회적 지지와도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다. 반면 Burt(1992)가 제시하는 연결망의 규모적합성 또는 제약성을 보여주는 구조적 틈새의 효과는 정보, 정서적 지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또한 가사지원, 재정적 지원, 또는 필요한 현물 등의 도구적 지지는 도움을 주는 연결망의 경우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결망이 중복되지 않고 이주여성들이 타자와의 관계에 의존적이지 않은 경우, 때로는 Granovetter(1973)가 제시하는 것처럼 일정정도 약한 연계를 보여주는 연결망을 지니는 경우 보다 많은 정보와 실질적인 서비스, 그리고 정서적 지지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조직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그 조직의 규범을 획득하고, 사회화 되는데 연결망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orrison, 2002)와도 유사한 것이다. 즉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일반 한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

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주로 남편과 시댁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밀접하고 결속력이 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비록 서로간의 결속력이 강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 또는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보나 실질적 도움과 같은 도구적 지지 및 정서적 지지를 받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5. 결론

### 1) 연구요약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와 규범을 배워야 하며, 새롭게 규정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연구들은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이런 특성에 따라 연결망 내 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혼이주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자아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형성하고 있는 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으며,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이 이들이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연결망을 각각 살펴보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연결망이 지지를 제공하는 연결망보다 단순 규모면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이 두 연결망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단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주체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받는 연결망의 경우 같은 나라 출신의 친구,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관련자, 그리고 공식적 관계로서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로부터의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라는 기존연구와는 다소 상이하다. 이는 본 연구참여자의 교육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고, 한국거주기간이 약 6년 정도로 초기적응단계의 가족중심에서 벗어나 직업이나 다양한 모임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서비스 관련자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이나 서비스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연결망에서 같은 국가 출신의 친구 등에 비해서 가족의 중요성이 다소 감소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도움을 받는 회수를 고려한다면 시댁식구는 여전히 정보 및 정서적 지지의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에서 같은 국가 출신의 구성원들은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로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경우와 주는 경우를 구분하여 보면,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받는 경우는 한국 사람이 더 많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같은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연결망에서 더 많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한국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며, 동시에 이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같은 나라 출신의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이 형성하는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연결망내 구성원들의 결속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밀도 및 주요행위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이 연결망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모의 적합성과 제약성이라는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이 도움을 받을 때나 제공할 때의 연결망은 밀도나 구조적 위치라는 특성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대응표본 검증의 결과 중복되지 않는 연계의 정도를 보여주는 규모적합성이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받는 경우 보다 광범위하며 다양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결혼이주여성이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간의 관계를 보면,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구성원들간의 결속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중복적 관계가 적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주고받았다. 이는 약한 연계의 강함을 일정정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새로운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속력이 강한 관계가 아니라 결속력이 다소 약할지라도 다양한 많은 사람과의 연계를 형성해야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다는 점이다.

## 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중심적 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여,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과 이를 통해 주고 받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논의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적 지지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였지만,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화된 특성을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를 본 연구가 보완하여 사회적 연결망의 실질적 분석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단순한 사회적 지원 대상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도움제공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도움을 받는 연결망과 도움을 주는 연결망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은 또 다른 이주여성에게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가족, 지역사회 또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기반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예컨대, 친밀하고 밀접한 상호작용보다 다양하고 넓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연결망에서 더 많

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초기적응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일대일 관계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교류할 수 있는 동일국가나 유사한 결혼이주의 배경을 지니는 이주여성들의 자조집단 원조 또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논의를 자아존중감,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에서 한국사회내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서 사회적 관계로 논의의 초점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의의를 지닌다.

이런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는 다행이 표집방식을 통해 소수의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을 도출함으로써 대표성에 한계를 지니며,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명확한 경계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응답에 기초하여 연결망과 타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해석하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이 그들의 적응, 생활상의 만족도, 또는 정체성의 형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근영·곽금주·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연구개관과 향후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28(3): 571-597.
- 김용학. 2011. 『사회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4.
- 박미정·엄명용.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6.
- 박바름·김석호·김병수. 2011. 삼자관계와 사회적 고립이 준법의식과 뇌물공여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5(2): 176-202.
- 손동원. 2010. 『사회네트워크분석』 서울: 경문사
- 이상식·최효진·박성재. 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34-1
- 이용균. 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주재·김순규. 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73-74.
- 임석희. 2009.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 12(4): 364-387.
- 정친석·강기정.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5-23.
- 행정안전부. 2011. 외국인주민현황. 서울: 행정안전부
- Bailey, S. and Marsden, P.V. 1999. Interpretation and interview context: examining the General Social

- Survey name generator using cognitive methods. *Social Networks*, 21: 287-309.
- Burt, R. S. 1984. Network items and the general social survey. *Social Networks*, 6: 293-339.
- Burt, R.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Delechat, C. 2001. International migration dynamics: The role of experience and social networks. *Labour*, 13(3): 457-486.
- Everett, M. and Borgatti, S. P. 2005. Ego network betweenness. *Social Networks*, 27: 31-38.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Iler, C. M., Wellman, B. and Marin, A. 1999. How to use SPSS to study ego-centered networks. *Bulletin de methodologies sociologiques*, 64. (<http://www.alexandramarin.ca/uploads>)
- Israel, B.A. and Antonucci, T. 1987.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Health Education Quarterly*, 14(4): 461-481.
- Lin, N. 1999.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s*, 22(1): 28-51.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sden, P. V. 2002. Egocentric and sociocentric measures of network centrality. *Social Networks*, 24: 407-422.
- Morrison, E. W. 2002. Newcomers' relationships: The role of social network ties during soci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6): 1149-1160.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Smith, V.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Stone, W. 2001. Measuring social capital: Empirical meaning and measurement validity. Research paper, 27.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Tilburg, T. V., Sonderen, B. V., and Ormel, J. 1991. The measurement of reciprocity in Ego-centered network of personal relationships: A comparison of various indic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1): 54-66.
- Van der Poel, M. G. M. 1993. Delineating personal support networks. *Social Networks*, 15:49-70.
- Van Duijn, M.A.J. and Vermunt, J. K. 2006. What is special about social network analysis ? *Methodology*, 2(1): 2-6.
- Wellman, B. and Wortley, S. 1990. Different Strokes from different folks: Community Ties an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3): 558-588.



## Eco-centered Network Analysis of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Rho, Yeon-He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Lee, Sang-Gyu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ark, Hyun-Sun**

(Sejong University)

**Rhee, Chaie-Won**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for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social supports provided by their social network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support-giving and support-receiving networks. Ego-centered network analysis is used for collecting network data on fifty-three migrant wives selected by a snowball sampling method. Results show that social support receiving and giving networks of female immigrants have similarities rather than differences, which implied that they play roles not only as support receivers, but also as support givers in their social networks. Also the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correlations between networks' characteristics, such as density and effective size of ego network, and types of support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less cohesive and less redundant ties female immigrants had, the more diverse and more informational and emotional supports they obtained from their social networks. Due to the sampling method and size,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o generalize the results for the whole population of female immigrants in Korea. However, it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female immigrants' social networks.

Key words: female immigrants,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s

[논문 접수일 : 11. 12. 31, 심사일 : 11. 01. 19, 게재 확정일 : 12. 02. 20]